역지통신 교섭기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 검토

윤 유 숙*

| 목 차 |

- I. 머리말
- II. 1807년의 ‘별서계(別書契)’ 교섭
 - 1. 수빙사 회답서계를 둘러싼 갈등
 - 2. 1807년 시게마쓰의 ‘별서계’ 교섭
- III. 1808년 역지통신 교섭의 전환과 시게마쓰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고의 목적은 1807년 조선에 건너온 쓰시마의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선과 쓰시마의 역지통신 교섭이 결렬된 채 3년째로 접어든 1807년, 막부의 확인과 추궁이 계속되자 이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쓰시마가 파견한 것이 간사재판 시게마쓰이다. 번의 존망(存亡)이 걸린 상황에서 쓰시마는 조선이 주장하는 ‘별서계(別書契) 제출’을 수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이런 의향은 시게마쓰에게 ‘내명(內命)’의 형태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시게마쓰는 별서계를 조선에 송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번청에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aoiiruka@hanmail.net

설명하여 수빙사 이래 꼭 막혀있던 조선과의 교섭에 물고름 뒀다. 또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시게마쓰는 조선 역관들이 작성한 ‘각서(覺)’·‘전령(傳令)’ 등을 확보하여, 쓰시마가 별서계를 제출한 이후 ‘조선의 역지통신 합의’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쓰시마 번청은 그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강사사 오우라와 재강사 고지마에게 시게마쓰와 함께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시게마쓰 이전에 조선에 건너간 간사재판들의 임무는 대개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종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였으나, 시게마쓰는 전례가 없던 통신사의 ‘역지사행(易地使行)’ 교섭을 담당하여 조선과 일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이것이 역대 간사재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게마쓰는 간사재판, 문위행영송재판, 통신사영(通信使迎)재판까지 연이어 담당한, 독특한 경력의 재판이었다. ‘역지통신’ 교섭에서 간사재판으로서 거둔 성과가 이후의 경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키워드 : 역지통신,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 서계, 조선통신사, 오우라 헤이자에몬, 고지마 우자에몬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1807년 조선에 건너온 쓰시마의 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역대 재판들의 임기·임무·재판기록(宗家記錄)의 현존여부 등을 소개한 長正統의 논고에서 시게마쓰 고노모는 ‘간사재판’으로 분류된다.

長正統의 논고에서 간사재판으로 분류된 사람은 1696년과 1700년의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 1736년 우치노 이치로자에몬(内野一郎左衛門), 1753년 다다 카즈에(多田主計), 1754년 마쓰우라 산지(松浦讚治), 1765년 시마오 다다에몬(嶋雄只右衛門), 1771년 도다 산자에몬(戸田三左衛門), 1807년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까지 총 7명으로,

파견 건수로는 8건이 된다.¹⁾ 근년 들어 이들 간사재판이 조선과 교섭한 내용을 검토한 논고들이 발표되어 역대 간사재판의 임무와 함께 18세기 조일(朝日) 통교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 규명되었으나²⁾ 시게마쓰 고노모의 활동은 아직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역대 재판 중에서 시게마쓰의 재판 경력은 독특했다. 그는 조선과 쓰시마의 역지통신 교섭이 정채되어 있던 1807년에 간사재판으로 조선에 건너왔다가 1809년에 문위행영송재판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1811년에는 조선통신사를 대동하고 쓰시마까지 가는 통신사영(通信使迎)재판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간사재판에 지명된 후 5년 동안 왜관과 쓰시마를 계속 왕복한 것인데, 이렇게 연이어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 재판은 그가 유일하다.

그가 역지통신 교섭을 위해 조선에 왔기 때문에 역지통신이 합의되기까지의 교섭과정을 다루었던 종래의 논고에서 시게마쓰의 존재가 언급되어 왔다. 田保橋潔의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1807년 강압노선에서 협조노선으로 전환하는 쓰시마의 방침을 이행한 사신’으로 위치 짓기도 하고, 최근 연구에서는 시게마쓰의 파견을 기점으로 쓰시마의 역지통신 교섭의 방침이 변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시게마쓰가 파견되는 배경과 왜관에서 수행한 교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고찰이 부족하다.³⁾

1)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96~104쪽

2) 재판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長正統, 앞의 논문,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98. 米谷均, 『雨森芳洲の對朝鮮外交-誠信之交-の理念と實態』, 『朝鮮學報』 148, 1993. 홍성덕,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1992. 尹裕淑,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2012, 278~284쪽. 윤유숙, 『조선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李炯周, 『18世紀の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對馬藩の裁判役』, 『名古屋大學大學院人文學研究科圖書』, 2019 등이 있다.

3) 역지통신이 실현되기까지 조선·쓰시마·막부 삼자 간에 진행된 사전 교섭에 관해서

또한 시게마쓰가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쓰시마는 역지통신 교섭을 위해 ‘강사사(講事使)’·‘재강사(再講使)’라는 차왜를 연이어 조선에 파견했다. 복수의 차왜들이 중복되어 파견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시게마쓰는 1809년에 문위행영송재판으로 전환되기까지 왜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본고는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던 1807·1808년에 시게마쓰가 간사재판으로서 역지통신 교섭을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지 조선정부와 쓰시마, 막부의 움직임을 시야에 넣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1807년의 ‘별서계(別書契)’ 교섭

1. 수빙사 회답서계를 둘러싼 갈등

본고는 로주 마쓰다이라 마사노부(松平定信)가 쓰시마에게 역지통신의 추진을 지시한 1788년부터 1804년까지의 진행은 할애하고, 1805년 상황부터 보고자 한다. 본고가 중점적으로 추적하는 대상이 간사재판 시게마쓰의 행적이고 조선에 도향한 것이 1807년이므로, 그가 왜관에

는 조선통신사(1811년)·왜학역관과 조선어통사·종가기록(宗家記錄)에 남아있는 한글 문서 등을 다룬 논고에서 소개되어 왔다.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卷,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長正統,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115, 1978. 三宅英利, 『文化朝鮮進使-易地聘禮の成立-』, 『北九州大學文學部紀要』B11, 1978. 李元植, 『文化度の使行』,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鶴田啓, 『日韓双方の史料からみる接觸の場』,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11, 2001. 岩方久彦, 『1811年對馬島易地通信研究』, 『한일관계사학회』23, 2005; 『19세기 조선의 대일 역지통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양홍숙·김동철·조강희·김경미, 『對馬島 易地通信과 譯官, 그 ‘의례적’ 관계와 ‘은밀한’ 교류의 간극』, 『한일관계사연구』50, 2015. 松原孝俊·岸田文隆編, 『朝鮮通信使易地聘禮交渉の舞台裏-對馬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から読み解く』, 九州大學出版會, 2018. 酒井雅代,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 吉川弘文館, 2021 등이 관련 논고이며, 최근 제기된 酒井雅代の 의견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후술할 것이다.

도착한 당시 양국의 교섭이 어떤 국면이었는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역지통신 사전 교섭의 흐름(1805~06년)

연도	월.일	진행 상황
1805 문화 2	5.19	막부가 쓰시마번에게 조선신사(朝鮮信使) 내빙요청(來聘要請)을 명함
	5.28	절목강정(節目講定)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조정이 강정관(講定官) 최국정(崔國禎)과 동래부사 정만석(鄭晩錫)을 처벌하기로 결정함
	6.25	새 강정관으로 역관 현의순(玄義洵)이 왜관에 음
	7.2	역관 최형(崔瑯)이 보낸 비밀문서가 조선의 소통사(小通事)를 통해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에게 도착함
	8.18~	역관 최형(崔瑯)· 최국정 등이 동래부(東萊府)에서 조사를 받음
	9.6	예조참의와 동래부사의 서계를 위조했다는 죄목으로 최국정을 포함한 4명이 왜관 근처에서 효시(梟示)됨. 간역사건(奸譯事件)
	11.2	쓰시마의 통신사청래대차왜(수빙사[修聘使]) 정관(正官)으로 후루카와 즈쇼(古川圖書)가 왜관에 도착함
1806 문화 3	3	동래부사가 등사한 수빙사의 서계가 조정에 보고됨(▲)
	5.2	수빙사에 대한 조선의 접위관(接慰官)과 차비관(差備官)이 동래에 도착함
	5.15	수빙사 봉진연(封進宴)이 행해지고 예조로 보내는 수빙사 서계가 조선 측에 전달됨
	6.25	수빙사 다례(茶禮)에서 예조의 회답서계가 수빙사에게 전달되었으나 ‘역지통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빙사가 수취하기를 거부함
	8.19	송사선(送使船) 연향 후 동래부사 오한원(吳翰原)과 수빙사의 도선주(都船主) 가노 고자에몬(加納郷左衛門)이 만나 담판을 벌임. 서계 개찬(改撰)에 관한 조선조정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동래부사는 서계를 그대로 수령하라고 요구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①이 표는 酒井雅代,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 吉川弘文館, 2021, 183· 185쪽에 수록된 표의 내용을 수정· 인용한 것이다.

②(▲): 전거는 『조선왕조실록』

통신사를 요청하라는 막부의 지시를 받은 쓰시마는 1805년, 통신사 청래대차왜(通信使請來大差倭) 별칭 ‘수빙사(修聘使)’로 후루카와 즈쇼(古川圖書)를 조선에 파견했다. 후루카와는 이듬해 1806년 ‘1809년 통신사를 폐주(弊州:쓰시마)에서 맞아 예사(禮事)를 잘 도와 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계⁴⁾를 조선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예조의 회답서계는 ‘역지통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의 표에 있듯이 후루카와가 왜관에 오기 불과 두 달 전, 조선에서는 ‘예조참의와 동래부사의 서계를 위조했다’는 죄목으로 역관 최국정을 포함하여 4명이 효시(梟示)되고 이미 사망한 역관의 자손들과 관계자가 유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⁵⁾ 이른바 ‘간역사건(奸譯事件)’이다.

조선은 ‘역지통신은 역관들의 간계(奸計)로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이전 교섭과정에서 합의되었던 사항, 즉 ①1797년 역관 박준한(朴俊漢)과 관수 도다 다노모(戶田賴母)가 역지통신의 조건에 합의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동래부사 정상우(鄭尙愚) 명의의 서계와, ②훈도 박치검(朴致儉)이 나카가와 요스케(中川要助)에게 건넨 예조참의 윤행원(尹行元)과 동래부사 김달순(金達淳)의 서계를 모두 위조된 것으로 규정하여,⁶⁾ 관련자들을 처벌해 버렸기 때문이다.

1806년 6월, 수빙사 후루카와는 예조 회답서계의 수취를 거부했다. 회답서계에는 역지통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고 전체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기조여서, 후루카와로서

4) 『조선왕조실록』 순조 6년(1806) 3월 27일 을해조

5) 조선정부가 조사를 통해 지목한 서계위조 주모자는 박준한·박치검·최경·최국정·김형우(金亨禹) 등 역관 5명, 위조서계 작성자는 동래부 거주 박윤한(朴潤漢), 서계에 찍는 도서(圖書)를 만든 사람은 상고(商賈) 김한모(金漢謨)·사환통사(使喚通事) 김무언(金武彦) 등이다. 박준한·박치검·김형우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최경·최국정·박윤한·김한모 4명이 효시되었고, 박준한·박치검의 자식들과 김무언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양홍숙 외, 앞의 논문, 239~240쪽

6) 酒井雅代, 앞의 책, 181~182쪽

는 사실상 수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7)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후루카와는 회답서계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동의하지 않았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걷고 있던 1807년 7월, 수빙사 후루카와는 조선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왜관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들 수십 명과 함께 왜관을 뛰쳐나가는 난출(闖出)을 감행했다.8)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의 장계(狀啓)를 통해 난출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조정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후 조선은 ‘수빙사는 발급된 회답서계를 수령하고, 쓰시마는 막부에 간역사건을 보고한 후에 막부의 의향을 받아서 새로운 서계를 가져오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번에 함부로 나온 행동은 전적으로 고의적으로 트집을 잡아 공동(恐動)시키려는 계책이니 그 계책을 적중시켜 줄 수는 없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서계(書契)를 작성해 준 후로는 전례에 의거해 받아가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며, 만약 왕복할 일이 있다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국서(國書)나 혹은 서계를 가지고 와서 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략) 또 그 본래의 일은 곧 수삼 명의 간사한 역관 무리들이 농간을 부린 소치이니, 사체(事體)로 논하건대 조정에서 어찌 시행을 허락할 리가 있겠는가? 대마도주(對馬島主)로 하여금 모름지기 즉시 간곡하게 강호(江戶)에 전달케 하여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9)

7) 예조 회답서계의 요점은 ①교빙(交聘) 장소와 증폐(贈幣) 절목은 구례(舊例)대로 해야 하므로 신격(新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甲寅年(1794)의 회답서에서 이미 명백히 했다. ②조선의 역관이 위서(僞書)했고, 그들을 처형한 이유는 국법(國法)을 굽히지 않으려는 조정의 뜻이자 일본에게도 울림을 주기 위해서이다. ③국가를 세우려면 예의(禮義)를 제일로 삼으며 예의는 상식고례(常式古例)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다. 이것은 이듬해인 1807년 12월 쓰시마에 도착한 사본이다. 宗家記錄『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信使前集書』(케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4, 文化4(1807) 12월 5일조 참조.

8) 『邊例集要』 권13, 闖出, 丁卯(1807), 7월조

한편 에도에서는 1807년, ‘來聘御用掛(통신사 초빙담당)’¹⁰⁾인 지사부교(寺社奉行) 와키사카 야스타다(脇坂安董)가 연초부터 계속 쓰시마 번의 에도가로(江戸家老) 오모리 한에몬(大森繁右衛門)를 불러 수빙사가 1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와키사카는 수빙사 답서가 도착했는지를 정월부터 6월, 7월 연속해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의 에도 번저는 “답서의 사본을 보니 글자의 상하 높이에 문제가 있어 쓰시마에서 심의하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해서 외교 의례를 치루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핵심을 피하는 답변만 거듭했다.¹¹⁾

사실은 도중에 쓰시마로 귀국한 수빙사의 도선주(都船主) 가노 고자에몬(加納郷左衛門)에게서 수빙사 회답서계 문제가 3월, 4월까지의 해결될 거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6월이 되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7월, 번주 소 요시카쓰(宗義功)는 직접 소바요닌(側用人)¹²⁾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를 간사재판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¹³⁾ 9월이 되자 와키사카는 “3월에 온다던 답서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 일이 지연되는 데에도 정도가 있다. 막부는 내빙(來聘)을 위한 준비가 다

-
- 9) 『조선왕조실록』 순조 7년(1807) 7월 29일 기사조, 국왕 순조는 이시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난출을 일으키는 쓰시마의 의도를 조정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 10) 막부는 1804년 6월, 쓰시마에서 1809년에 통신사를 맞기로 결정하고 ‘來聘御用掛’에 필두 로주(老中) 도다 우지노리(戶田氏教)·지사부교 와키사카 야스타다(脇坂安董)·와카도시요리(若年寄) 교고쿠 다카히사(京極高久)·오메쓰케(大目付) 이노우에 도시아스(井上利恭)·간조부교(勘定奉行) 야규 히사미쓰(柳生久通)를 임명한 상태였다. 仲尾宏, 『朝鮮通信紙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288쪽
- 11)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계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25, 文化4(1807), 정월 20일·6월 22일·7월 2일조
- 12) 에도시대에 막부 다이묘 하타모토(旗本) 가문에서 주군에 근시하며 재정을 비롯하여 서무를 담당하던 직책을 고요닌(御用人)이라 한다. 소바요닌(側用人)이 설치된 제번(諸藩)이나 하타모토(大身旗本)의 경우 소바요닌은 주군의 『사적인 일·가정(家政) 상의 용무』를 전하고, 상대방과 질충하여 서무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 13)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4(1807) 11월 6일조

되어서 향후 행례(行禮)만 치르면 되는데 답서가 지연되고 있으니 매우 불안하다. 만에 하나 조선과의 일이 잘못되면 번주 소씨와 그대들뿐만 아니라 막부의 공무를 맡은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¹⁴⁾

이에 쓰시마는 ‘수빙사의 귀국을 독촉하기 위해 번주 소씨의 소바요닌 시게마쓰 고노모를 재판(裁判)에 임명해서 8월에 왜관으로 파견한’ 사실과, ‘예조답서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선이 시간을 끌고 있어서 수빙사가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¹⁵⁾ 수빙사의 왜관 체재가 햇수로 3년째 접어들어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데 막부의 호출과 추궁이 계속되다보니 위기의식에 휩싸인 쓰시마가 내린 결단이 ‘간사재판 파견’이었다.

14)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 慶應冊子番號25, 文化4(1807), 9월 朔日조. 와키사카는 9월 19일·22일, 쓰시마 에도번지에 근무하는 고지마 우자에몬(小嶋宇左衛門)을 호출해서 수빙사 귀국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선의 상황에 관해 물었다. 고지마가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쓰시마에 있다가 에도에 왔기 때문에 호출한 것인데, 이를 동안 보고한 내용을 각각 2통의 봉서(封書)로 작성하여 수빙사 예조답서 사본과 함께 제출했다. 고지마 보고서의 특징은 첫째, ‘수빙사의 회답서계에 역지통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쓰여 있어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조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답서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2통의 봉서와 함께 제출된 수빙사 예조답서의 사본(1806년 7월자 예조참판 조덕운(趙德潤) 답서)이 갖는 의문점이다. 이 사본은 ‘使行은 己巳年(1809) 봄으로 기대하니 차후에는 귀주(貴州)에서 예사(禮事)를 돕는다’고 역지통신에 호응하는 내용으로, 역지를 거부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빙사 후루카와가 1806년 6월, 답서의 수취를 거부한 이래 조선이 답서를 수정해주지 않는 상태가 1807년 9월까지 이어졌는데, 조선이 역지에 동의하는 취지의 ‘1806년 7월자 회답서계’가 막부에 제출된 것이다. 게다가 뒤에 나오는 <표2>에 있듯이 1807년 12월, 쓰시마에 도착한 수빙사 회답서계의 사본(1806년 5월자)은 역지통신을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쓰시마로서는 이 시점에 와서 조선이 역지통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차마 막부에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고지마가 막부에 제출한 ‘1806년 7월자 회답서계 사본’은 쓰시마의 창작물,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 慶應冊子番號25, 文化4(1807)년, 9월 19일·22일·24일조.

15)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 慶應冊子番號25, 丁卯(1807), 9월 18일조.

2. 1807년 시게마쓰의 ‘별서계’ 교섭

종래의 연구에서는 ①1807년 8월, 재판 시게마쓰가 파견되어 조선에 대한 쓰시마의 대응이 ‘강압’ 방침에서 ‘협조’ 방침으로 전환되었고, ② 쓰시마가 그때까지 교섭을 담당하던 강정사 도다 다노모(戶田頼母)·담당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등을 처벌하고 담당자를 일신하여 ‘협조’ 노선의 시게마쓰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이에 대한 酒井雅代の 의견은 ①원래 강압책이란 좀처럼 대응하려 하지 않는 조선의 조정을 움직이기 위해 조선의 역관 현의순·최석 등의 조언을 얻어 실행한 것으로, 교섭현장인 왜관에서는 간역사건 이후 파견된 조선의 역관과 쓰시마의 교섭 담당자가 여전히 공범관계에 있었다, ②수빙사의 예조 회답서계에 관한 조선 측의 주장은 일관되게 ‘회답서계를 수령하고 나서 별서계를 조선에 보내면 된다’였는데, 이것을 쓰시마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로 정리된다.¹⁶⁾

본고는 酒井雅代の 견해가 1807년 하반기 이후의 진행을 이해하는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1807년 하반기 이후 간사재판 시게마쓰의 교섭을 추적할 것이다.

<표 2> 역지통신 사전 교섭의 흐름(1807년)

연도	월.일	진행 상황
	6.16	강정관 현의순과 별차(別差) 최석(崔昔)의 제안을 받아들여, 왜관에 머물고 있던 쓰시마 번사들이 관수(館守)의 봉진연에 나타나 담판을 벌임
	7.23	왜관의 재판자(在館者) 다수가 난출(闌出)을 감행함

16) 酒井雅代, 앞의 책, 194~195쪽.

1807년 文化4	8.23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가 왜관에 도착함
	10	훈도 현의순와 별차 최석이 재판 시게마쓰에게 ‘쓰시마가 막부에 간역사건을 보고하고서 별서계(別書契)로 역지병례를 요청하면 조선도 이에 응하겠다’는 전령(傳令)과 연명한 각서(覺)를 건넨
	11.11	쓰시마 번청이 前 관수 도다 다노모(戶田賴母)·目付 하야카와 조스케(早川惣介)에게 왜관에 체재하는 상태에서 근신(差扣),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통사 우시다 켄베에(牛田善兵衛)·요시마쓰 우쓰케(吉松右助)에게 금족(禁足) 처벌을 내림
	11	훈도 현의순과 별차 최석이 연명하여 시게마쓰에게 ‘별서계가 오면 마땅히 힘껏 주선할 것이다’라는 각서를 건넨
	11	별차가 별서계 초안(조선 작성)을 시게마쓰에게 전달함
	11.22	훈도 현의순과 별차 최석이 연명한 각서를 쓰시마가 막부에 제출함. 막부가 별서계 보내는 것을 재가하고 쓰시마에게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12.2	막부가 별서계의 문장을 확정, 조선에 보내도록 지시함
	12.5	수병사 후루카와와 시게마쓰의 보고서·수병사 회답서계 사본·전령 사본·별서계 초안(역관이 제시)·그 외 문서들이 쓰시마에 도착함

① 전거 : 宗家記録『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遅延二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1·2』

② ‘월.일’은 전거로 활용한 위 중가기록의 날짜를 그대로 인용.

시게마쓰의 재판기록은 현재 일본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1·2』이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수병사 회답서계건을 포함하여 역지통신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을 상대로 벌인 교섭의 구체상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조선의 역관과 쓰시마의 주요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접촉한 사실과 논의된 주제가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로, 그 주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양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등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여타의 『差倭記錄』과 『裁判記錄』이 교섭의 진행 과정 즉 차왜의 주장과 조선 측의 반응, 역관의 의견 등을 상세하게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형태가 아닐 수 없다. 『裁判記錄 重松此面日記 1·2』에는 간사재판에 연이은 두 번의 재판 활동(1809년 문위행영송과 1811년 조선통신사영송)에 관해서도 기재된 것이 없다.

쓰시마 번주 소 요시카쓰의 소바요닌이던 시게마쓰는 1807년 7월, 간사재판에 임명되어 8월 23일 왜관에 도착했다. 앞에서 언급한 난출 사건으로부터 한 달 뒤이다. 도착한 당일부터 시게마쓰는 수빙사 후루카와,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를 불러 임무에 관해 논의했다.¹⁷⁾

수빙사를 향한 조선의 주장은 ‘이미 발급된 예조의 답서를 수령하라. 부정한 역관들에 의해 멋대로 위조된 서계를 가지고 진행된 종래의 교섭을 인정할 수 없으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막부에 제대로 알린 후에 통신사 초빙에 관한 막부의 의중을 별서계(別書契)로 작성해서 제출하라’였다. 간역사건이 있었던 만큼 쓰시마를 불신한 조선조정은 역지통신이 ‘온전한 막부의 의향’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4월 조정에서는 쓰시마에 역관을 파견해서 에도에서 내려온 관리에게 ‘간사한 역관 무리들이 중간에서 간사한 짓을 한 것에 대마도가 속았던 전후의 사실을 상세히 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¹⁸⁾

주목할 부분은 시게마쓰가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 번청이 그에게 비밀리에 하달한 지시이다. 번청은 “만약 (조선이) 새로운 서계로 역지(易地)를 요청해 달라고 하면 신속하게 번청에 보고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라. 번청의 지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¹⁹⁾ ‘새로운 서계’란

17) 宗家記錄『裁判記錄 重松此面日記 1』(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文化4(1807)년 8월 23일·29일조.

18) 『조선왕조실록』 순조 7년(1807) 4월 20일 임진조.

19) 『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遲延二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

통칭 ‘별서계’인데, ‘별서계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시게마쓰를 파견할 무렵 쓰시마 번청은 내부적으로 별서계 송부를 수용가능한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판차왜가 왔다는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는 동래부사 오한원의 장계에는 시게마쓰가 역관에게 도주(島主)의 뜻을 전하는 부분이 나온다.

(시게마쓰가 답하기를) 도주(島主)가 ‘본사(本事)의 중간에 속임과 거짓이 있음을 갖추어 알아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기에, 애초 세 차례의 서계로 인해 이미 동무(東武·막부)에 죄다 전보(轉報)했는데 이제 중간에서 속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귀국(조선)의 허락하지 아니함 또한 괴이할 게 없는데 한결같이 근지(靳持)한다면, 폐주(弊州·쓰시마)는 절로 위태로운 단서가 있기로, 마땅히 서계로 충성을 다해 애간(哀懇)한다’고 했습니다. (후략)²⁰⁾

위는 시게마쓰가 구두(口頭)로 설명한 것인데, 번주 소씨와 쓰시마가 막부와 조선 사이에서 매우 곤란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절하게 전했다. 간사재판 시게마쓰의 교섭은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훈도 현의순과 별차 최석은 10월, 동래부사 전령(傳令)의 사본을 시게마쓰에게 건넸다. 전령은 ①이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막부가 구체적으로 사정을 진술하여 서계로써 요청해야 한다 ②혹은 조선의 도해관(渡海官)이 에도에 가서 막부에 직접 보고해서 조선 조정과 쓰시마가 모두 역관에게 기만당한 사실이 판명된 연후에 서계를 받아 조선에 와서 처분을 기다리면 사체(事體)가 곧게 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²¹⁾

전령뿐 아니라 훈도 현의순과 별차 최석은 두 사람이 연명해서 시계

書』(계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17, 文化4(1807)년 「內密相含候趣」.

20) 『조선왕조실록』 순조 7년(1807) 9월 2일 경자조

21) 『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遲延二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4(1807)년 「東萊令監傳令大概謄書」.

마쓰를 수신자로 한 ‘覺(각서)’ 두 통을 전달했다. ‘10월자 覺’의 내용은 “수빙사가 맡은 임무의 사정이 급함을 조정(朝廷)이 이미 알고 있고, 용무의 의도가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지통신은 중대한 일이나 그간 간역(奸譯)들이 행한 바가 있고 또한 지금의 상황을 막부가 모르는 것 같으니 쓰시마가 별도로 간청(懇請)하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였다. 그리고 ‘11월자 覺’은 “귀주(貴州)의 시급한 사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만약 별서계를 보내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별서계가 오면 마땅히 힘껏 주선할 것이다”는 내용이었다.²²⁾

역관은 통사 히사미쓰 이치지로(久光市次郎)에게도 별서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라며 별서계에 들어갈 문장을 적어서 건넸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역관 현의순과 최석은 히사미쓰에게 “쓰시마 서계의 문체가 조선의 문체를 많이 닮아서 안 된다”는 주의를 주었다.²³⁾ 이것은 역관이 건넨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조정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서계를 제출하되 역관의 문장을 참조한 티가 나지 않도록 쓰시마 식의 문체를 구사하라는 요구였다. 역관이 별서계에 들어갈 문장까지 만들어 주고 시계마쓰는 그것을 그대로 수령했을 정도이니 이 단계가 되면 쓰시마가 역관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였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 무렵 쓰시마는 ‘極內密評議 내용· 재판이 보낸 極內密書狀· 內密手控’을 에도의 오우라에게 발송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즉 훈도 현의순과 별차 최석이 시계마쓰에게 내건 조건과 문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번청의 평의 내용 등을 정리해서 에도로 보냈

22) 『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遲延ニ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4(1807)년.

23) 『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遲延ニ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4(1807)년, 통사 히사미쓰가 별차에게 들은 얘기와 그에게 받은 별서계의 下書 등을 적어서 재판 시계마쓰에게 제출한 『口上』. 두 역관 연명의 10월자 『覺』.

다.24) 두 역관이 연명하여 시게마쓰에게 건넨 각서(10월자)는 11월 22일, 막부의 와키사카에게도 전달되었다. 에도 가로 오모리는 이 각서에서 ‘수병사가 맡은 임무의 사정이 급함을 조정이 이미 알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아 역관들이 사사롭게 작성한 각서가 아니며, 조선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고 설명했고 와키사카는 즉각 별서계의 발급을 재가했다.25) 막부는 12월 2일, 에도 번저에서 작성한 별서계의 문장을 확정해서 조선에 보내도록 지시했다.26)

왜관에 도착한지 약 3개월이 지나 시게마쓰는 그간의 사정을 기록한 장문의 서한(11월 29일자)을 번청에 보냈는데, 요점은 ‘역지통신을 요청하는 별서계를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조선 측의 동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①역관들은 도중에 쓰시마로 귀국한 가노 고자에몬(加納郷左衛門)이 별서계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서계가 오면 상황은 심중 팔구 잘 풀릴 거라고 했다.
- ②별서계는 조선이 원하는 바이고 쓰시마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것인데, 수병사 후루카와까지 귀국하면 지금까지 해온 ‘體’가 완전히 사라져 조선이 원하는 바가 된다.
- ③조선의 역관들도 “왜관에 건너오는 사자(使者)가 증가하는 건 좋지 만 체류하던 교섭 담당자들이 떠나는 것은 사안 상 좋지 않다”고

24)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4(1807)년 10월 19일 조. 쓰시마 내에서 평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5) 이 때 조선 역관의 각서를 접한 와키사카와 막부 관계자들은 간역(奸譯)이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와키사카는 오모리에게 이것을 추궁했다. 오모리는 “각서에 언급된 간역이란 조선인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며 근년 그들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풍문을 들었다”라는 변명을 거듭했고 일본 측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선 역관에게 문의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문서를 반복해서 제출했지만, 이 점에 대한 와키사카의 의심은 그 후에도 쉽게 불식되지 않았다.

26)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 慶應冊子番號25, 卯(1807), 11월 22일·11월 晦日·12월 4일조.

내밀하게 말했다.

- ④ 별서계가 왜관에 도착했을 때 또 수정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조선 역관에게 문장을 만들어 오게 하여 충분히 상의해서 초안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란다.²⁷⁾

시게마쓰를 비롯한 교섭 담당자들은 혹시라도 조선정부가 별서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 역지통신을 거부할 가능성을 상정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곧이어 양역(兩譯)은 12월 초두 시게마쓰 전담 통사인 스미나가(住永)에게 “고훈도(古訓導) 양원(陽元) 현판관(玄判官: 현식[玄弼])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對馬切信使(역지통신사)’가 성사되지 못하면 쓰시마가 곤란해지니 별서계가 도착하면 ‘對馬切信使’를 결정한다는 것이 조정의 의견(朝議)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훈도는 마치다이칸(町代官) 아비루 젠스케(阿比留善助)에게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조정에서 이 일을 맡은 사람 3,4명이 퇴직하거나 유배형에 처해지는 바람에 평의(評議)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봄 무렵부터 조정에 이동과 교체가 없어서 안정되게 다스려지고 있다. 막부가 위조(偽造)를 지시할 리 없다는 것을 조정도 잘 알고 있다”²⁸⁾고 조정의 정황을 전해주었다. 아울러 쓰시마가 염려하는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12월 초, 왜관에서 보낸 후루카와와 시게마쓰의 보고서·수빙사 회답서계의 사본(1806년 5월자 예조참판 조덕윤[趙德潤] 명의)·각종 전령들의 사본²⁹⁾·별서계 초안(역관 제시)·그 외 문서들³⁰⁾이 쓰시마에 도착했다.³¹⁾

27)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 慶應冊子番號25, 丁卯(1807).

28)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慶應冊子番號17, 文化4(1807)『兩譯より住永惠助江内密相咄候越手控』, 『訓導より阿比留善助江内密相咄候を申聞き候を書付二爲仕候』.

29) 1807년 9월 27일자, 1807년 10월자, 1807년 10월 24일자.

30) 역관이 대차사(大差使) 도선주에게 보내는 1807년 11월자 覺, 역관이 재판에게 보낸 1807년 11월자 覺.

III. 1808년 역지통신 교섭의 전환과 시게마쓰

1808년 2월, 쓰시마는 에도에서 온 별서계를 이테이안(以酏菴)에 보내 청서하는 한편 이 별서계를 조선에 전하기 위한 사자에 구미가시라(與頭) 오우라 헤이자에몬(大浦兵左衛門)을 임명했다.³²⁾ 쓰시마는 오우라를 ‘강사사(講事使)’라 명명했다.³³⁾ 처음에는 오우라의 서계 수신자를 예조참의로 했으나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계를 추가했다. 강사사의 차왜로서의 격을 소차왜에서 대차왜로 바꾸어 파견한 것이다.

강사사 오우라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인 3월 쓰시마의 도시요리(年寄)들이 오우라에게 건넨 문건에는 “별서계를 동래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수병사의 지시에 따르라. 간사재판과도 상담을 충분히 해서 일이 성사되게 하라”³⁴⁾고 지시했다. 왜관에 머물고 있던 수병사 후루카와가 여

31)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4(1807)년 12월 5일조. 酒井雅代는 앞의 책, 187쪽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후루카와가 1807년 11월 하순에 예조담서를 수취했다고 추측했고, 田保橋潔은 9월에 수령하기로 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간사재판 시게마쓰와 그 이후 교섭에서 보이는 특징은 조선과 쓰시마가 서로 교환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미리 상대에게 보여주고 각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식으로 수취할지 수정을 요구할지 정했다는 점이다. 수병사의 예조 회답 서계 때문에 워낙 많은 세월을 소비하다보니 본서(本書)를 정식으로 수령하기 전에 사본을 보고 질충을 마쳐서 교섭에 속도를 내는 쪽을 선택한 듯하다. 12월 5일에 쓰시마에 도착한 것은 본서가 아닌 사본이라 후루카와가 최종적으로 본서를 수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뒤에 나오는 재강사(再講使) 고지마 우자에몬(小嶋宇左衛門)이 이듬해 1808년 9월 에도에 가져간 보고문에는 후루카와의 거취에 관해 “조선이 답서를 수정해 주지 않아 수병사가 수령하지 않았지만, 다년간 왜관에 머물렀고 이전 일이 제대로 풀렸으니 귀국하는 건에 관해 여쭙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라고 문의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후루카와가 귀국길에 오른 것은 1808년 12월 朔日이다.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게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9일조, 宗家記録 『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2』(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文化5(1808)년 12월 朔日조.

32)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게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 17, 文化5(1808) 2월 10일·2월 12일조. 봉진(封進)은 구라타 한조(倉田半藏)이다.

33) 별칭은 통신사공판간사대차사(通信使公幹講事大差使)이다.

34)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전히 조선과의 교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재판 시계 마쓰도 주요한 교섭 담당자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사사의 서계에 예조참판 수신 문서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번청에 제안한 것도 수빙사와 간사재판이었다.³⁵⁾

<표 3> 역지통신 사전 교섭의 흐름(1808년)

연도	월.일	진행 상황
1808년 文化5	2	2월 중순 에도에서 쓰시마에 온 초안을 이테이안(以酏菴)에 맡겨 별서계를 작성함 오우라 헤이자에몬(大浦兵左衛門)이 강사사(講事使)에 임명됨
	3.22	재강사(再講使) 고지마 우자에몬(小嶋宇左衛門)의 조선 파견을 막부가 승인함
	4.14	강사사 오우라 헤이자에몬 왜관에 도착, 별서계 본서(本書)를 조선에 제출함
	5	5월 중순 재강사가 소지할 서계의 문면을 확정함
	6.2	강사사의 서계를 조선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해서 제출함
	6.27	재강사 고지마 우자에몬 왜관에 도착, 서계(별서계 부서[副書])를 조선에 제출함
	8.30	강사사 회답서계(수정본)의 사본이 왜관에 도착함
	9.12	재강사 고지마 우자에몬이 강사사의 회답서계 사본을 가지고 쓰시마로 일시 귀국함
	9.21	고지마 우자에몬이 강사사의 회답서계 사본을 가지고 쓰시마를 출발, 에도로 향함
	10.16	강사사가 조선의 회답서계를 수취, 쓰시마에 도착함

『兵左衛門江相渡候書付』.

35)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3월 20일조. 강사사에 오우라가 임명된 후 3월에는 간사재판의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 고생했다는 명목으로 통사 오다(小田)·요네다(米田)·요시마쓰(吉松)에게 포상으로 백미(白米) 3俵씩이, 5월에는 후루카와와 시게마쓰에게 각각 ‘時服’이 하사되었다.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5(1808)년 3월 6일·5월 23일조.

12.1	수빙사 후루카와가 왜관을 출발, 12월 3일 쓰시마 사스나(佐須奈)에 도착함
12.4	‘강사사의 답서에 따라 문위행과 강정(講定)을 논의하라’는 로주 봉서(老中封書)가 쓰시마에게 발급됨
12.26	시게마쓰가 문위행영재판(問慰行迎裁判)에 정식으로 임명됨

① 전거 : 宗家記録『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1·2』

② ‘월.일’은 전거로 활용한 위 종가기록의 날짜를 그대로 인용.

예조참판이 수신하는 오우라의 서계에는 ‘빙례역지는 오랫동안 의논해온 바로 막부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聘禮易地, 一款往歲以來屢及商議, 固出東武之旨)’³⁶⁾라는 구절이 들어 있었다. 오우라는 4월 중순 왜관에 도착했는데, 조정에서는 오우라의 서계를 놓고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의정 김재찬(金載贊)이 말하기를, "(전략) 이번엔 차왜(差倭)가 가지고 온 서계는 곧 예조참판에게 보낸 것이니, 관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중략) 그 나라에는 해마다 가뭄, 황재(蝗災), 기근, 역질(疫疾)이 잇달아 형편상 강호(江戶)에서 신사(信使)를 영접할 도리가 없어서 대마도(對馬島)로 바꾸어 줄 것을 간절히 청했던 것이니, 대개 ‘두 나라에서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례와 같이 경접위관(京接慰官)을 차송(差送)하여 접대하고 그 서계를 받도록 허락하소서. 또한 장차 답하는 서계를 닦아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강호(江戶)에 도해역관(渡海譯官)을 보내어 참으로 확실한지 여부를 탐지하여 결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³⁷⁾

36)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37) 『조선왕조실록』 순조 8(1808)년 5월 30일 을축조.

윤6월 4일에 강사사의 다례(茶禮)· 7월 6일에 봉진연(封進宴)이 각각 거행되었다.³⁸⁾ 8월 조정에서는 오우라의 회답서계를 놓고 좌의정 김재찬의 주도 하에 ‘이제 들건대 강호(江戶)의 집정(執政)이 바야흐로 접대차 대마도에 나왔다고 하니, 역관을 치송(馳送)하여 대마도에 와 있는 집정과 그 역지(易地)의 가부에 대해 상확(商確)하겠다는 뜻으로 서계(書契)를 고쳐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³⁹⁾ 조선은 수빙사에 대해서는 강고하게 ‘역지통신’을 거부했으나, 1808년이 되어 김재찬이 조정의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역지통신 긍정’으로 평의가 선회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런데 8월 말 조선의 역관이 별서계에 대한 조선의 답서 사본을 오우라에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에는 ‘역지통신을 수락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오우라가 즉시 이것을 문제 삼자 역관은 “빙례는 중대사라서 쌍방이 한 장의 서한만으로 경솔하게 정할 수 없다. 사신을 쓰시마에 보내 역지에 관해 면담을 한 후에 결정하자는 게 조정의 뜻이라서 수락한다는 문장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요청에 응한다는) 결단을 내렸으니 의심하지 말라. 신속하게 예조답서를 받고 돌아가야 일이 잘 풀린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답서 4통의 사본· 양역(兩譯)과 차비

38) 『文化信使記錄(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6월 15일· 윤6월 16일조, 『裁判記錄 重松此面日記 2』, 文化5(1808)년 7월 6일조.

39) 『조선왕조실록』 순조 8년(1808) 8월 6일 기해조. 김재찬은 강사사 오우라의 서계를 받은 단계에서는 에도에 역관을 파견해서 막부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막부 관리가 쓰시마에 와 있으니 쓰시마에 파견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재찬은 이듬해 1809년 5월, 문위행의 출발을 앞두고 대일 통교상의 폐해를 열거한 ‘폐해수개조(弊害數箇條)’를 조정에 제출했다. 그는 일본의 역지통신 제안에 응하는 대신 종래 조일 통교에서 ‘폐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쓰시마에 요구하여 조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김재찬이 지적한 ‘폐해수개조’는 7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1809년 쓰시마 번청에 제출되었고 쓰시마의 수락을 거쳐 ‘기사약조(己巳約條)’로 체결되었다. 김재찬이 지적한 ‘폐해’들과 기사약조의 내용· 의의에 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순조 9년(1809) 5월 신미조· 尹裕淑,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店, 2011, 제4장 참조.

관(差備官) 2명이 연서한 각서를 오우라에게 전했다. 총 4명이 연서한 각서(8월자)는 “역지병례를 수락한다는 구절이 없지만 조선 조정은 이미 결정했으니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였다.⁴⁰⁾

재판 시게마쓰도 이 문제에 관해서 문의했는데, 역관은 “답서에 ‘역지수락’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쓰시마에 역관 사절이 건너갔을 때 막부의 관리도 내려와 있어서 반드시 역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형태를 취하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⁴¹⁾ 간역사건으로 4명이 사형에 처해진 전례도 언급한 것을 보면 조선의 역관도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역지에 합의하고 나서 막부와 구체적인 ‘강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는 쓰시마와 달리, 역관은 막부의 관리를 직접 만나 막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 때 역관은 시게마쓰에게 10월 중에라도 쓰시마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사사 오우라가 조선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2월 무렵 쓰시마의 에도 번저에서는 사자(使者)를 한명 더 조선에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오모리는 와키사카에게 이 사자를 ‘御別翰(별서계)에 이어 御副翰(별서계 부서)을 가져가는 사자’라고 설명해서 3월 22일 파견 재가를 받았고, 당시 에도 번저에 근무 중이던 고지마 우자에몬(小嶋宇左衛門)이 ‘재강사(再講使, 通信使公幹再講使大差使)’에 지정되었다.⁴²⁾

40)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3일조 연서한 네 사람은 훈도 현의순· 별차 君美 현주부(女主簿)· 차비관 현식(女忒)과 玉汝 현판관(下判官)이다.

41)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宇左衛門より差出候書付』.

42)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1808년 9월 시점에서 고지마 우자에몬의 지위는 ‘表御用人序格 筆頭御留守居兼’이다. 田保橋潔은 그의 앞의 책 757쪽에서 ‘고지마가 와키사카의 내명(內命)을 받고 파견되었다고 했으나 전거를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재강사의 파견은 오우라가 강사사에 임명된 후 대략 한 달 만에 결정되었다. 의문점은 쓰시마가 동일 안건을 담당하는 차왜를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파견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는 점이다. 재강사가 가져가는 서계에는 작년(1807) 간사재판 시게마쓰가 보내서 12월 초 번청에 도착한 ‘별서계의 초안(역관 제시)’이 활용되었다.⁴³⁾ 막부의 확인을 거쳐 5월, 고지마가 가져가는 서계의 문장이 확정되었다.

예조참판에 보내는 서계의 요지는 ①쓰시마에서 의례를 행한다는 명을 막부로부터 받아 수병사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체류하고 있고, 일이 복잡하게 되어 안타깝다 ②역지빙례(역지통신)는 원래 막부의 생각임에 틀림이 없으며 막부는 여태까지 수년간의 교섭을 상세히 알고 있다 ③수락하는 답서를 보내주면 인국(隣國)의 도리에서도 다행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⁴⁴⁾ 이 서계에는 막부를 지칭하는 ‘동무(東武)’라는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었다.

번청은 당시 교섭을 위해 왜관에 머물고 있던 주요 인물들, 수병사 후루카와·간사재판 시게마쓰·강사사 오우라에게도 각각 당부의 서한을 발송했다. 후루카와와 오우라에게 보낸 서한에는 고지마를 ‘副翰使者’로 파견하는 이유에 관해, ①조선의 역관들은 오직 별서계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②副翰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피할 수 있다 ③副翰은 막부의 생각에 부응해서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낸다고 설명했다.⁴⁵⁾ 조선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서 별서계를 보내기는 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역관이 제시한 문장을 활용한 서계도 작성하여 교섭이 성사될 확률을 높이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번청은 재강사 고지마에게 “①공무에 관해서는 도다 다노모(戶田賴

43) 酒井雅代, 앞의 책, 188쪽.

44)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5월 8일·18일조.

45)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母)46)와 상의하고 후루카와 즈쇼의 지시에 따르라 ②조선의 답서를 수령하면 번청에 문의하지 말고 즉시 귀국하라”47)고 지시했다. 고지마 우자에몬은 6월 27일 왜관에 도착했고, 29일에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렸다.48) 이윽고 강사사 오우라의 회답서계가 동래부에 내려오자 9월 12일 고지마는 그 사본을 가지고 쓰시마로 귀국했고, 번청은 오우라에게 “조선의 답서를 막부에 제출한 뒤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답서의 본서를 빨리 수령해서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오우라는 답서를 받아 10월 12일 왜관을 떠났고 이 답서는 10월 중에 에도로 보내졌다.49)

쓰시마 입장에서 ‘역지통신을 수락한다’는 구절이 없는 답서를 받는 것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쓰시마는 만족해했다. 9월에 고지마가 가져온 강사사 회답서계의 사본을 확인한 번청은 막부에 그것을 제출하

-
- 46) 도다 다노모의 경우 1796년 관수에 임명되었으나(네 번째 임명) 관수 임기가 끝난 후 통신사행절목강정(通信使行節目講定)을 지시받아 유관(留館) 상태가 계속되었다. 1810년 6월에서야 쓰시마로 귀국했으니 햇수로만 15년을 왜관에 체재한 셈이다. 번청은 1807년 11월, 도다 다노모에게 왜관에 체재하는 형태로 근신처벌을 내렸는데, 재강사 파견에 앞서 그에게 전한 지시는 “요즘 조선의 상황 때문에 반항(響響)을 위해 징계하기는 했지만 (중략) 공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계자들과 서슴없이 상의하도록 후루카와에게도 명했다. 물론 조선에게 그런 모습을 들켜지 않도록 주의하라”였다. 쓰시마가 도다 다노모와 담담당사 오다 이쿠고로를 처벌한 것은 수병사 교섭 장기화의 책임을 물었음을 조선 측에 알려서 교섭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는 의도라는 점이 재확인되는 부분이다.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참조.
- 47)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5월 15일자 문서.
- 48) 『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2』, 文化5(1808)년 6월 27일조,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5(1808)년 윤6월 10일조. 1808년 6월 고지마가 관착(館着)함으로써 왜관에 체재하는 차와는 강정사 도다, 수병사 후루카와, 간사재판 시게마쓰, 강사사 오우라, 재강사 고지마까지 도합 5명이 되었다. 이런 유례없는 ‘이상(異常) 사태’는 쓰시마에게 역지통신을 성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말해준다.
- 49)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5일조,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5일·10월 16일·23일조.

기 전인데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에도 가로에게 보낸 서한에는 “수락한다는 구절이 없기는 하지만 조정이 역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는 역관의 각서를 받았고 서둘러 도해역관을 파견하자는 대담(對談)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설명한 뒤 “강사사의 일이 잘 풀려서 재강사의 서계에 관해서는 교섭할 필요가 없으니 우자에몬에게 왜관에 돌아가기를 명하지 않았다”고 했다.⁵⁰⁾

재강사 고지마 우자에몬은 차왜로 와서 서계를 조선정부에 제출해 놓고 도중에 쓰시마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지통신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교섭과정은 그야말로 변칙의 연속이었다. 어쨌거나 쓰시마의 별서계 제출과 그에 대한 조선의 회답서계를 기점으로 교섭은 장기간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강정(講定) 교섭을 향해 움직이게 되었다.

간사재판 시게마쓰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별서계를 송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번청에 설명하여 수빙사 이래 꽉 막혀있던 조선과의 교섭에 물고를 텃다. 그 후에도 시게마쓰는 ‘문위행영재판’의 지위로 문위행과 함께 왜관을 떠날 때까지 강사사 오우라·재강사 고지마로 이어지는 교섭 과정에 관여했다. 번청은 별서계 교섭 건을 계기로 시게마쓰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오우라와 고지마에게 시게마쓰와 함께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그들이 왜관에 와 있는 동안에도 시게마쓰는 조선의 역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들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후루카와·도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⁵¹⁾

50)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5일 조. 고지마는 강사사의 서계 사본을 소지하고 9월 21일 쓰시마를 출발, 에도로 향했다.

51) 1809년 문위행이 쓰시마에 건너간 후 8월, 그간 조선과의 교섭에 관여한 가신들과 통사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는데, 오우라와 고지마가 가타나(刀)나 時服을 하사받는데 비해 시게마쓰는 新知 70石에 80石高가 가증(加増)되었다. 번주 소씨가 시게마쓰의 활약을 각별히 높이 평가했음이 드러난다. 宗家記録『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

특히 강사사 오우라의 예조답서를 가지고 역관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역관들은 시게마쓰에게 ‘문위행영재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쓰시마 번청은 강사사의 회답서계 사본을 확인한 후 시게마쓰에게 문위행영재판의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통신사 강정(講定)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조선 역관들이 쓰시마에 도착했을 때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게마쓰에게 강정 초안을 마련하게 했다. 더불어 번청은 “이번에 각별하게 애쓴 조선의 역관들에게 보상을 할 예정이니 대관(代官)과 상의하라. 가까운 편에 동(銅)을 왜관에 보낼 것이다”라는 언급도 덧붙였다.⁵²⁾ 시게마쓰는 왜관에 체류하는 상태로 12월 말, 정식으로 문위행영재판에 임명되었다.⁵³⁾

IV. 맺음말

본고는 1807년 조선에 파견된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의 교섭에 주목하여 그가 조선에 건너온 이유, 조선과 협상한 내용, 왜관에서 머무는 동안의 역할에 관해 고찰했다.

수병사의 역시통신 교섭이 결렬된 채 3년째로 접어들 1807년, 막부의 확인 작업과 추궁이 계속되자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쓰시마가 파견한 것이 간사재판 시게마쓰이다. 그를 파견하는 단계에서 쓰시마는 조선이 주장하는 ‘별서계 제출’을 수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었고, 이런

使前集書』(게이오대학 소장), 慶應冊子番號5, 文化6(1809)년 8월 11일·12일조

52)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 慶應冊子番號17, 文化5(1808)년 9월 15일자 書狀. 역관들 중 누가 어느 정도의 동(銅)을 쓰시마에게서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확인이 필요하다.

53)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 慶應冊子番號4, 文化5(1808)년 12월 26일조

의향은 시게마쓰에게 ‘내명(內命)’의 형태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시게마쓰는 당시의 상황에서 별서계를 조선에 송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번청에 설명하여 수빙사 이래 꼭 막혀있던 조선과의 교섭에 물고를 텃다. 또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시게마쓰는 조선 역관들이 작성한 ‘각서(覺)’·‘전령(傳令)’ 등을 확보하여, 쓰시마가 별서계를 제출한 이후 ‘조선의 역지통신 합의’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쓰시마 번청은 그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강사사 오우라와 재장사 고지마에게 시게마쓰와 함께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시게마쓰 이전에 조선에 건너간 간사재판들의 임무는 대개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종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의였으나, 시게마쓰의 임무는 전례가 없던 통신사의 ‘역지사행(易地使行)’ 교섭이므로 조선과 일본 차원의 문제를 담당한 셈이다. 이것이 역대 간사재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시게마쓰는 간사재판, 문위행영송재판, 통신사영(通信使迎)재판까지 연이어 담당한, 독특한 경력의 재판이었다. ‘역지통신’ 교섭에서 간사재판으로서 거둔 성과가 이러한 경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그의 간사재판 자격의 활동만 검토했으나 문위행영송재판, 통신사영재판 활동에 대한 검토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王朝實錄』

『邊例集要』

- 宗家記録, 『裁判記録 重松此面日記 1・2』(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江戸留書)』慶應冊子番號25(게이오대학 소장)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信使前集書』慶應冊子番號4・5(게이오대학 소장)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修聘使返輸入送方遲延ニ付幹事裁判朝鮮江被差渡候覺書』慶應冊子番號17(게이오대학 소장)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講事使被差渡候覺書』慶應冊子番號17(게이오대학 소장)
宗家記録, 『文化信使記録(御國書留) 再講使覺書』慶應冊子番號17(게이오대학 소장)

2. 논문

- 岩方久彦, 「1811年 對馬島易地通信研究」, 『한일관계사학회』23, 2005.
_____, 「19세기 조선의 대일 역지통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양홍숙·김동철·조강희·김경미, 「對馬島 易地通信과 譯官, 그 ‘의례적’ 관계와 ‘은밀한’ 교류의 간극」,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윤유숙, 「근세 朝日통교와 非定例 差倭의 조선도해」, 『사충』 70, 2010.
_____, 「조선 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_____,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6, 2019.
홍성덕,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1992.
米谷均, 「雨森芳洲の對朝鮮外交-「誠信之交」の理念と實態-」, 『朝鮮學報』 148, 1993.
三宅英利, 「文化朝鮮進使一易地聘禮の成立一」, 『北九州大學文學部紀要』 B11, 1978.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_____, 「倭學譯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1978.
李元植, 「文化度の使行」,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1997.
李炯周, 「18世紀의 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對馬藩の裁判役」, 『名古屋大學大學院人文學研究科図書』, 2019.
鶴田啓, 「日韓双方の史料からみる接觸の場」,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11, 2001.

3. 저서

尹裕淑, 『近世日朝通交と倭館』, 岩田書院, 2012.

松原孝俊・岸田文隆編, 『朝鮮通信使易地聘禮交渉の舞台裏-對馬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から読み解く』, 九州大學出版會, 2018.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卷,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98.

_____, 『日朝貿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酒井雅代,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 吉川弘文館, 2021.

仲尾宏,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투고일 : 2021. 10. 20. 심사완료일 : 2021. 11. 22. 게재 확정일 : 2021. 12. 07.
--

| Abstract |

A Study of the Gansa jaepan Sigematsu Konomo's Activities
in 1807~1808

Yoon, Yu-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Sigematsu Konomo (重松此面) in 1807 when he was dispatched to Joseon as a Gansa jaepan, or Kanji saiban (幹事裁判). Three years prior to 1807, Tsushima Domain's negotiations with Joseon to switch the destination of the next Tongsinsa mission to Tsushima Domain had ruptured. Sigematsu was therefore sent to resolve the situation and relieve the pressure the Edo bakufu was applying on Tsushima Domain to make progress. Because the domain believed that its existence was at stake, it had been leaning toward the option of accepting Joseon's request for the domain to submit a separate diplomatic document called byeolseogye (別書契). Such intentions were most likely shared with Sigematsu by way of an unofficial order.

Sigematsu convinced Tsushima Domain's political leaders that the only solution was to send a byeolseogye to Joseon, which succeeded in reopening the gate to negotiations with Joseon that had been closed because of Subingsa(修聘使) Hukurawa(古川). While negotiating with Joseon interpreters, Sigematsu secured un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they'd drafted such as gakseo (覺書) and jeollyeong (傳令) in order to plant devices that would guarantee an agreement with Joseon once Tsushima Domain submitted a byeolseogye. The domain's political leaders recognized the progress Sigematsu had made and ordered Oura Heizaemon (大浦兵左衛門) and Kozima Uzaemon (小嶋宇左衛門) to help Sigematsu with the

negotiations.

Prior to Sigematsu, gansa jaepans were dispatched to Jose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Tsushima Domain. While Sigematsu also served as a gansa jaepan, he played a rather different role that dealt with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necessary for the Joseon Tongsinsa's next visit to Japan, which was more of a diplomatic matter between the governments of Joseon and Japan.

Key Words : Yeokjitongsin(易地通信), Gansa jaepan(幹事裁判), Sigematsu Konomo(重松此面), Seogye(書契), Joseon-tongsinsa(朝鮮通信使), Oura Heizaemon(大浦兵左衛門), Kozima Uzaemon(小嶋宇左衛門)